



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월운 스님.

#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 10년 작업”

## ■ ‘화엄청량소초삼현 유망기·잡화기’ 발간한 월운 스님

최근 <화엄청량소초삼현 유망기>와 <화엄청량소초삼현 잡화기>를 발간한 월운 스님(동국대 동국역경원장). 스님은 조선 후기 교학의 중심이었던 <화엄경>의 소초를 발굴해 정리하는 작업을 10년째 해왔다.

스님이 10년봉사로 강사가 평생 강원에서 강(講)한 뒤 후배 강사들에게 물려준 메모형태의 교과지침서인 사기(私記)를 정리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좋은 문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

스님은 “한국불교가 선종심이다보니 경을 몰라도 되는 분위기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달밤에 체조하듯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사기는 어려운 <화엄경>의 경우 현담(玄談), 삼현(三賢), 십지(十地), 후분의 한 부분만 기록돼 있으며, 글자도 초서로 되어 있어 해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운 스님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스님은 취독한 사기저본을 짚은 스님이 컴퓨터로 정서해 주면 확인들과 그것을 놓고 그날 그날의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오답자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발간된 책들은 3년 연한인 능엄학림 2·3기 학생들이 6년동안 공부한 성과물이기도 하다. 스님은 “전문 경사(經師)를 양성해 보자”는 취지로 1996년 봉선사 능엄학림을 개원했다.

유망기와 잡화기를 발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완본을 구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60년대 초 당시 주지로서 있던 해남 대흥사 박응송 스님이 소장했다는 인학 스님이 쓴 잡화기 저본을 찾아 서울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담양으로 경로를 찾아갔다.

끝내 전남 담양 용흥사 주지인 진우 스님에게서 일자권부터 관자권까지 거의 전질이 갖추어진 잡화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유망기의 저본은 동국대 도서관에서 찾았다. 이 유망기는 내용이 친절할 뿐 아니라 필사가 정확하고, 천자권부터 삼자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특징.

스님은 저자가 연담노사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동사열전 연담조 저서중에 화엄 유망기 5권을 지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된 유망기와 잡화기는 삼현 즉 초회 육품(세주묘업품, 여래현삼품, 보현삼매품, 세

계성취품, 화엄세계품, 비로자나품, 제2-3회 육품(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계찬품, 십주품, 범법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제4회 사품(승아마천공품, 아미공중계찬품, 심행품, 심무진장품), 제5회 삼품(승도솔천공품, 도솔공중계찬품, 심회향품) 등 42권 34책이 수록되었다.

한편 능엄학림은 그간 <화엄경과도집> <현담 유망기> <현담발명> <현담현담기> <십지유망기> <십지잡화기>를 간행해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mailto:wwkim@buddhapia.com)



화엄청량소초삼현 유망기 화엄청량소초삼현 잡화기 동국대역경원 | 봉선사능엄학림 | 각각 2만원

메모 형태 교과지침서인 사기 능엄학림 2·3기 학생들과 매일매일 수업 진행하며 정리

## “無我が 아니라 空我다”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민족사 | 성법스님 지음 | 9500원

“한국불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즉 무아(無我)란 말을 앞으로는 공아(空我)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아와 윤회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무아에 대해 ‘그것은 없다’는 무가 아니라 있고 없고를 넘어선 공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無) 자를 ‘공(空)’으로 바꿔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성법 스님(고양 용화사 주지)의 책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은 불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역설하며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스님은 이 책에서 ‘깨달음에 대해 물질을 떠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공(空)으로 받아들이는데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물질을 멀리하는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물질은 공이라는 것.

스님은 결과적으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연기법은 공 공이고, 공의 체득이 아득다라삼마삼보리를 이룬다고, 다시 궁극적인 깨달음은 자성이 없는 공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출간된 해설서만 100종이나 되는 <반야심경>. 이는 <반야심경>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법 스님은 “박학다식한 해설도 중요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머 넘치는 일화와 현대적 감각의 촌철살인의 인용문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책을 쓴 동기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책을보면 오히려 물리학과 천문학 뇌과학 생명과학 심리학 철학 우주론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 불교의 핵심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탄허 스님의 ‘사집’ 개정판 나와



서장·선요/도서·절요 탄허 스님 역해 | 교림출판 | 각각 5만원

내전(內典)의 교과서인 서장(書狀), 절요(節要), 도서(都序), 선요(禪要)의 대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탄허 스님의 <사집(四集)>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은 <서장·선요> <도서·절요> 2권으로 정리됐다.

원래 전 4권으로 1976년 완간된 <사집>은 탄허 스님이 1939년부터 역해를 시작해 75년 달고한 것.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 다소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바꾸고 책의 구성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전환했다.

<서장>은 남송(南宋)의 대혜선사가 당시 사대부의 물음에 답한 것으로 선문(禪門)의 간화선(禪話)을 주창하여 조주무자회를 타파하면 성불한다 가르치고 있다. 또 목조선을 공박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젖어 있는 속세의 인사들에게 선의 요체를 잘 말하고 있다.

<선요>는 원의 고봉선사가 참선의 요지를 잘 설명하였는데, 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구삼요, 투조관이 주인을 이루고 있다.

<절요>는 본래 규봉선사가 전술하신 법집별 행위를 고려 보조국사가 중요한 것을 뽑아내고 사기까지 넣었다. 그 내용인즉 사종(선수·홍주·우두·하택) 법을 밝히고서 법에는 불변과 수언이 있고 사람에는 돈오와 집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도서>는 화엄7조 규봉종밀선사가 선원제전집 100권을 편집하여 선장을 만들고 선교일치를 주장하는 동시에 선과 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비방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선교를 총망라하여 화통하도록 하고 있다.

##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정토

올고 그들의 판단을 요하는 일에 직면하면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었다’는 결론에 가닿을 때가 많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허물어지고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단절되고 만다. 아집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풀어주는 열쇠가 제시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통도사 전계사 해남 스님이 풀어낸 <보현행원품 강설>이다.

해남 스님은 <보현행원품 강설>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의 건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나뭇잎을 밟고 중생들이 서로 믿고 예배하며 존경하고 찬탄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토임을 일깨우고 있다.

해남 스님은 오래전부터 보현행원품을 수지 독송해왔다. 화엄경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보현행원품 강설>은 옛날부터 가장 많이 독송되던 경전 중의 하나인 보현행원품을 제일 먼저 초를 달았던 청량징관 이후의 여러 가르침들을 참고로 해남 스님이 새로운 번역과 해설을 시도하고 있어 새롭다.

서본, 정중본, 유통본으로 나뉜 강설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강주를 역임한 스님의 이력을 통해 터득된 지혜의 안목으로 보현보살심종대원의 이해를 이끌어 내고, 수행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라’ ‘부처님의 칭찬하라’ ‘널리 공양을 닦으라’ ‘실법하여 주기를 요정하라’ 등 보현보살의 열가지 커다란 바람(十種大願)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또한 책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보현보살님의 향훈에 흠뻑 젖게 만다.

<보현행원품 강설>을 펴낸 해남 스님은 동경 대정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중앙승가대학 불전국역원 원장, 불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통도사 전계사로 또, 통도사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해남 스님은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지혜로운 선각자를 따라서 배우고 남 잘되기를 빌어주고 나누어 갖기를 가르치는 것이 보현보살의 실천행”이라며 “이렇듯 어찌 보면 너무나 쉬워서 무시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공양하고 원을 세워 바른 깨침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yosiamun.com 추천도서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조화로움심, 법정스님, 9800원
  - 간화선(조계종수행의관)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1만5000원
  - 꽃의 나라, 미안나 운주사, 김경희, 1만원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홍기파, 4만3000원
  - 그대 떠나 보거나 열린박물관, 해안스님, 90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신간**

불교방송 <성찰속의 부처님 말씀>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해충스님 지음

부다기아

해충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12,000원

#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

부처님 닮아가는 참다운 행복의 길

원고를 펼쳐보니 해충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느껴진다. 길지않은 글 편편에는 중생계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가산 지관 **伽山 智冠**

부다기아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해충스님 저서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출판법회

· 일시 : 불기 2550(2006)년 4월 17일 오후 6시-9시 · 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꽃도 너를 사랑 하느냐」 10쇄 발행 3만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부다기아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9